

# 勞動市場 展望과 潛在人力 活用方案\*

金 泰 洪\*\*

## < 目 次 >

- I. 問題 提起
- II. 勞動力의 需給展望模型
- III. 中長期 勞動市場의 展望
- IV. 潛在人力의 特性和 展望
- V. 潛在人力의 活用方案

## I. 問題 提起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부문간 노동력수급 不均衡現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인난은 대개 低賃 單純勤勞者의 구인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인력부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인력불균형 현상이 國民經濟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개방화, 자율화와 같은 對外 環境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행과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의 진전으로 대내 여건도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는 곧 바로 人力需要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수요측면의 변화와 함께, 인력공급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인구증가율 둔화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高學歷化, 인구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여성개발원 고용연구실.

1) 김유배(1995), pp. 385-398.

구조의 老齡化 진행, 여성의 사회진출욕구의 확대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력수급 양 측면에서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는 향후 인력수급 불균형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勞動力需給展望을 한 뒤에, 이를 기초로 향후 勞動市場 여건과 함께 潛在人力의 중요성 및 그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勞動力의 需給展望模型

### 1. 推定模型

노동공급형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단기경기변동과 노동공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失望勞働者模型(discouraged worker model),<sup>2)</sup> 임금수준의 변동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恒常賃金模型(permanent wage model) 그리고 상대적 임금수준이 노동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相對賃金模型(relative wage model)<sup>3)</sup> 등이 있다.

노동력공급의 전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설명변수의 외삽치(예측치)이다. 설명변수의 과거치를 이용한 추정식이 과거의 노동공급형태를 아무리 잘 설명할 수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설명변수의 예측치를 이용한 전망결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전망을 위한 모형설정과 독립변수의 사용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급격한 변동을 보여온 賃金變數는, 정확한 예측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결과 노동력공급을 전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임금을 제외하고 인구와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국내총생산액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일종의 실망노동자모형으로 노동공급을 전망했다.<sup>4)</sup>

2) A. Tella(1964), G. L. Perry(1977), 김수곤(1976).

3) 김중수(1986).

4) 박명수(1990), 일본 노동성(1988), 일본 경제기획청(1989), 한국교육개발원(1978), 한국개발연구원(1981), 직업훈련연구소(1983), 백용기·오창훈(1992).

본 논문도 선행연구와 같은 한계로 인해서 아래의 식 (1), 식 (2)와 같이 勞動供給模型을 설정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별, 연령계층별로 노동공급합수를 추정 및 전망하였다. 즉, 식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요의 변동을 나타내는 변수인 국내총생산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5-19세, 20-24세 남녀노동력을 추정할 때에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설명변수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추정하였고, 25-29세와 30-34세 既婚女性の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6세 미만 자녀수의 대리변수로 조출산율(crude birth rate)을 포함시켜 추정하였다.<sup>5)</sup> 그리고 60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에는 소득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 年金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보았다.

—연령계층별 남자—

$$ML_{i,t} = f\{ML_{i,t-1}, ME_i, \text{Log}(GDP)_t\} \quad (1)$$

—연령계층별 여자—

$$FL_{i,t} = g\{FL_{i,t-1}, FE_i, \text{Log}(GDP)_t, CH_{i,t}\} \quad (2)$$

여기서,  $ML_{i,t}$  ( $FL_{i,t}$ ) :  $t$ 연도 남자(여자)의  $i$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ME_i$  ( $FE_i$ ) :  $t$ 연도 남자(여자)의  $j$ 학교급별 취학률,

$\text{Log}(GDP)_t$  :  $t$ 기의 국내총생산액(1990년 불변가격)의 대수치,

$CH_t$  :  $t$ 년도 자녀수.

勞動力需要 展望은 단위생산액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를 전망함으로써, 계획된 생산액 달성을 위한 필요노동량을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다시 경제성장계획치와 일관성이 있는 산업구조를 전망한 뒤에, 이에 상응하는 필요고용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기간별 부가가치창출액 변화량에 따른 추가 필요고용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產出額을 기준으로 인력노동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고용계수와 산출액 예측치를 이용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자본과 노동력간의 대체가능성 그리고 노동력들간의 대체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며 고용계수

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W. B. Bowen and T. A. Finegan (1969), PP. 87-158, 김수곤(1976), 6-7장 참조.

의 불변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계수의 변동을 감안하는 방법으로는 총고용량을 총산출량의 증가분으로 전환시켜 추정하기도 한다.<sup>6)</sup>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노동서비스 투입량과 생산액간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기술진보 등에 의한 산업의 고용흡수력 변화가 감안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附加價值를 기준으로 노동력 수요를 전망하는 경우는, 대개 아래와 같은 식 (3)을 이용한다.<sup>7)</sup> 본 논문에서 노동력 수요에 대한 전망은, 식 (3)을 기초로 노동력 수요전망을 한 김태홍·김재원(199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begin{aligned}\ln L^s &= \alpha_0 - \lambda pt / \alpha + \ln X_t + (1 - \lambda) \ln X_{t-1} \\ \ln L_t^s &= k(X_t, \ln L_{t-1}^s)\end{aligned}\quad (3)$$

여기서,  $X^*$  : 부가가치액(GDP),  $L^s$  : 고용자수,

$Ae^{\mu}$  : 기술진보 등의 효과를 반영하는 shift parameter,

$\alpha$  : 부가가치의 노동시간당 고용탄성치,

$\lambda$  : 최적수준 고용량에 도달하려는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

## 2. 使用資料와 變數

본 논문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한 결과에 통계청의 민간인구의 예측치를 적용하여 노동력공급을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將來人口推計』에는 2010년까지의 총인구에 대한 추계가 수록되어 있다. 민간인구는 총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의무경찰포함)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성별 연령계층별 ‘민간인구 / 총인구’ 비율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란 가정 하에서, 1994년의 통계청 『將來人口推計』의 총인구와 『經濟活動人口年報』의 민간인구를 기초로 성별 연령계층별 ‘민간인구 / 총인구’ 비율을 산정한 뒤에, 이 비율을 통계청의 장래인구

6) 이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박명수(1990), 한국산업개발원(1983) 등이 있음.

7) 단일방정식으로 단기생산함수,  $X_t = Ae^{\mu}(L^s h)^{\alpha}$ ,  $h$ : 노동시간, (3)'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식 (3)은 앞의 식 (3)'를 비용최소화 가정과 코익부분조정시차를 첨가하여 정식화하면 도출된다. 김종수(1986), 앞의 글, p. 101.

추계 결과에 곁해서 1995년-2010년의 민간인구를 추계하였다.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는 통계청의 『1963-1993년 지난 30年間 雇傭事情의 變化』(1994), 『經濟活動人口年報』(1995)를 이용하였다. 남녀 고등학교 진학률 자료는 통계청의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1995)를 이용하였고, 전망치는 1994년에 이미 남녀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각각 99.1%, 98.5%로서 거의 100%에 육박함에 따라 1995년부터는 매년 0.1%씩 증가시켜 진학률이 99.9%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값을 전망치로 사용하였다.<sup>8)</sup>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의 전망치는 교육부의 『教育統計年報』를 이용해서 진학률을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전망치를 추정 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sup>9)</sup> 국내총생산액은 한국은행의 『國民計定』을 사용하였고, 예측을 위해서 외삽치로 사용된 국내총생산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부자료인 1990년 불변 국내총생산액의 전망치를 이용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알려진 출산율은 통계청의 『韓國의 社會指標』(1978, 1994)에 수록된 조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는 1970년 이후의 연별자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1975년을 기점으로 루이스의 轉換點(turning point)을 통과하여 무제한적인 노동공급시장에 제한적인 노동공급시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기간도 1975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1987년부터 경제활동인구를 14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1987년 이전의 14세-19세 연령계층의 참가율을 15-19세로 조정하여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 3. 推定結果

식 (1), (2)를 추정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았다. 추정은 통상최소자승

8) 1995년 이후의 남녀 고등학교 진학률의 전망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15-19세 연령층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결과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교진학률 증가율이 거의 한계(즉, 100%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진학률의 증가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는 15-19세 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치에 무시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9) 한국여성개발원과 통계청은 각기 다른 진학률 정의를 사용하였다. 즉, 한국여성개발원의 진학률의 정의는 '(상급학교입학자/당해 연도 졸업자수)×100'이고, 통계청은 '(당해 연도졸업자수 중에서 진학자수/당해 연도 졸업자수)×100'이다. 김태홍, 김재원(1995), 한국여성개발원.

법(OLS)을 이용하였으며, 自己相關(auto-correl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였다. 남녀 15-19세,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 추정에는 진학률 변수를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진학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나, 1970년 이후 남녀 연소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상급학교 진학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 참가율추정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6세 미만 자녀의 수(대리변수로 조출산율)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그리고 60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에는 소득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 연금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insignificant)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과거부터 수급이 이루어진

〈표 1〉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회귀방정식

	상수항	$ML(-1)$	$\log(GDP)$	$MH_t$	$MU_t$	$R^2$	D.W.
$ML_{15-19}$	83.27 (3.27)	0.48 (3.45)	—	-0.81 (-3.26)	—	0.97	1.93
$ML_{20-24}$	7.06 (1.55)	0.94 (19.3)	—	—	-0.08 (-1.85)	0.96	1.70
$ML_{25-29}$	78.56 (1.07)	0.45 (0.89)	-2.40 (-0.97)	—	—	0.91	1.47
$ML_{30-34}$	36.16 (1.70)	0.64 (3.23)	-0.16 (-0.62)	—	—	0.51	1.74
$ML_{35-39}$	67.87 (0.48)	0.34 (0.23)	-0.39 (-0.40)	—	—	0.57	1.79
$ML_{40-44}$	26.90 (1.51)	0.70 (3.91)	0.07 (0.31)	—	—	0.48	1.75
$ML_{45-49}$	72.02 (1.10)	0.26 (0.40)	-0.25 (-0.24)	—	—	0.54	1.49
$ML_{50-54}$	16.66 (1.09)	0.73 (4.38)	0.60 (1.38)	—	—	0.59	1.84
$ML_{55-59}$	-1.41 (-0.10)	0.80 (6.09)	1.46 (1.75)	—	—	0.73	1.76
$ML_{60+}$	-18.12 (-1.48)	0.62 (3.34)	3.09 (2.24)	—	—	0.74	2.25

주: ( )속의 값은 t-통계치를 나타냄.

〈표 2〉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회귀방정식

	상수항	$FL_i(-1)$	$\log(\text{GDP})$	$FH_i$	$FU_i$	$R^2$	D.W.
$FL_{15-19}$	40.84 (2.20)	0.61 (3.99)	—	-0.36 (-2.20)	—	0.97	1.84
$FL_{20-24}$	-72.27 (-4.13)	0.40 (2.75)	9.17 (4.38)	—	-0.16 (-3.77)	0.97	2.02
$FL_{25-29}$	-42.46 (-2.10)	0.55 (2.72)	5.10 (2.18)	—	—	0.94	1.73
$FL_{30-34}$	-49.62 (-2.15)	-0.16 (-0.40)	8.69 (2.98)	—	—	0.89	1.50
$FL_{35-39}$	-19.18 (-1.99)	0.08 (0.37)	5.94 (3.50)	—	—	0.86	1.75
$FL_{40-44}$	0.792 (0.07)	0.39 (1.83)	3.00 (1.97)	—	—	0.68	1.80
$FL_{45-49}$	12.35 (1.23)	0.47 (2.55)	1.67 (1.20)	—	—	0.69	1.82
$FL_{50-54}$	-9.77 (-0.76)	0.41 (1.83)	3.62 (1.98)	—	—	0.73	1.84
$FL_{55-59}$	-22.05 (-1.55)	0.22 (0.93)	5.17 (2.73)	—	—	0.70	1.96
$FL_{60+}$	-53.84 (-2.90)	0.37 (1.78)	5.77 (2.98)	—	—	0.90	2.06

주: ( )속의 값은 t-통계치를 나타냄.

반면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은 각각 1975년과 1988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인다.

### Ⅲ. 中長期 勞動市場의 展望

#### 1. 장래 민간인구 추이

향후 노동력공급은 민간인구의 장래추세치에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따라서 향후 民間人口의 증감추이와 성별, 연령계층별 구성비 변화는, 향후 노동력공급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인 15세이상 (민간)인구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민간인구는 1963년 14,551천명에서 1994년에 32,93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

〈표 3〉 장래민간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15-19세	14.2	11.0	9.9	8.0	7.7
20-24세	10.4	10.5	8.6	7.9	6.3
25-55세	58.1	59.3	60.6	61.1	60.1
55-59세	5.6	6.0	5.8	6.2	7.1
60세이상	11.7	13.2	15.1	16.9	18.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년에 36,180천명, 2005년에 38,102천명 그리고 2010년에는 39,920천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15세 이상 민간인구의 연령계층별 構成比를 보면, 0-14세 연령층인구가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1970년 이후부터 감소함에 따라 15-19세 연령층인구도 1990년부터 하락하였다. 그 결과 15세 이상 전체 민간인구에서 15-19세 민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에 14.2%에서 1995년 11.0%, 2000년 9.9%, 2005년 8.0% 그리고 2010년에는 7.7%가 될 것이다. 25-5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200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55세 이상 연령층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 將來 勞動力供給 展望

노동력공급 전망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60.0%에서 2000년에 63.3%, 2005년 65.3% 그리고 2010년에는 66.1%로 증가할 것이다. 타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구성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연소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인 進學率 증가율이 2000년대 중반에 한계에 이르고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참가 욕구가 현재의 추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제에 기인한다.<sup>10)</sup>

10) 일본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 고용정책연구회(1995).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90년 73.9%에서 2000년에 76.4%, 2005년에 77.6%, 2010년에 78.6%로써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여성은 1990년 47.0%에서 2000년에 50.8%, 2005년에 53.4%, 2010년에 54.7%로 증가할 것이다. 2010년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대략 80%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학생이나 고령남성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용 남성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여성 참가율은 54.7%로서 추가적인 증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향후 勞動力 供給規模를 보면 1994년 현재 2,032만명에서 2000년 2,289만명, 2010년 2,6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94년 1,216만명에서 2000년 1,346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1,532만명이 될 것이다. 여성도 1994년 815만명에서 2000년 942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1,108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남녀노동력은 모두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1990년 하반기에 남녀 각각 연평균 1.7%, 1.4%에서 2000년대 하반기에는 1.1%, 1.3%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靑年層(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급학교 진학률과 학생의 시간제취업정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소득증대와 함께 연소인구의 감소에 따른 大學競爭率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sup>12)</sup> 이러한 진학률 증대는 청년층 경

<표 4> 성별 노동력규모와 증가율 전망

(단위: 천명, %)

	1994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전체	20,326	22,891	24,863	26,406	2.0	1.6	1.2
(참가율)	61.7	63.3	65.3	66.1	—	—	—
남자	12,167	13,466	14,479	15,324	1.7	1.4	1.1
(참가율)	76.4	76.4	77.6	78.0	—	—	—
여자	8,159	9,425	10,383	11,081	2.4	1.9	1.3
(참가율)	47.9	50.8	53.4	54.7	—	—	—

12) 현재의 정원 증가대로 대학정원이 계속 늘면 전체고교졸업자:전체대학정원 비율은 2000년에 1.2:1, 2005년에는 0.6:1 그리고 2010년에는 0.4:1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1994),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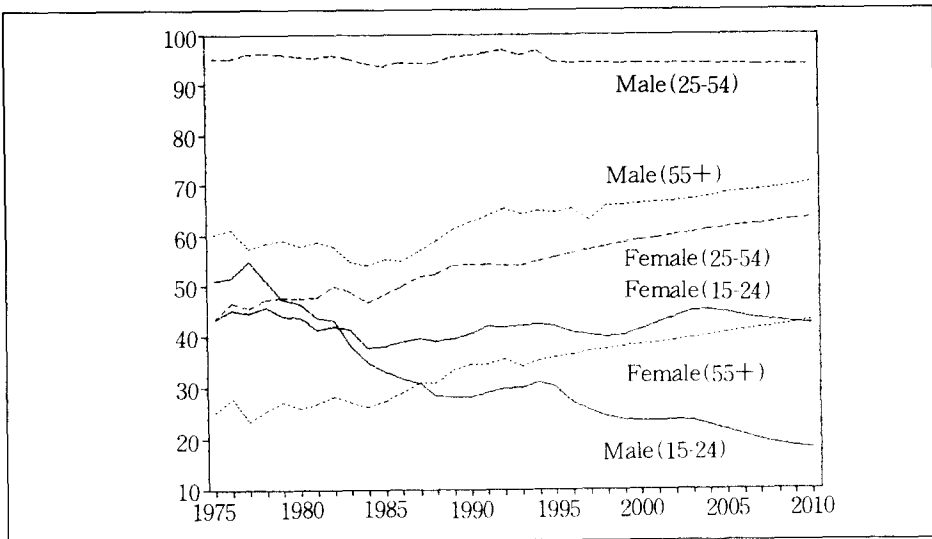
제활동참가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15-19세,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감소되어, 각각의 참가율은 1994년 12.9%, 62.1%에서 2000년 8.8%, 60.8% 그리고 2010년에는 8.5%, 59.7%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만연되고 학교교육이나 입시제도 자체가 변화되어 외국과 같이 시간제로 취업하는 학생 수가 증대하면, 동 연령층의 참가율은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진학률이 2000년대 중반 경에 100.0%로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200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참가율이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여자도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되나 그 감소속도는 급격히 둔화될 것이고, 20-24세 참가율은 전문대졸 및 대졸 신규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主勞動力層(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현재의 참가율 수준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성도 시간제노동의 확산, 서비스업의 확대에 따라서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既婚女性の 再就業欲求가 증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동 연령층 여성의

〈그림 1〉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노동시장 참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 및 간호를 지원하는 제반 정책들이 시행되고 출산·육아에 따른 勞動市場退出이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 25-29세, 30-34세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여성 25-29세, 30-3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현행의 추세가 지속되면 1994년 각각 32.5%, 32.2%에서 2000년에 50.5%, 53.0%, 2010년에는 56.9%, 57.0%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가되어도 2010년의 동 연령층 참가율은, 여전히 1994년의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을 것이다.

또한 향후 남녀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소득증대와 사회보장혜택의 확산에 따른 고령자의 건강 증진으로 인해서, 高齡層(55세 이상)의 노동시장참여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sup>13)</sup>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시행이 향후 본격화되어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면,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55-59세, 60세 이상의 참가율은 1994년 각각 68.9%, 38.2%에서 2000년에 72.1%, 42.2% 그리고 2010년에는 74.4%, 45.1%로 증가될 것이다. 물론 향후 기업들이 인력부족에 따라 현재 대개 55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치보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 3. 向後 勞動力需要 展望

노동수요함수 식 (3)의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구한 김태홍, 김재원(1995)의 향후 취업자수 전망치를 보면, 인력수요증가율은 1980년대 후반의 3.9%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6-2000년 기간 중에는 2.2%, 2001-2005년 기간 중에는 2.1%, 2006-2010년 기간 중에는 1.5%로 나타났다. 즉, 노동수요증가율은 2005년까지 2%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약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12) 노동부의 『근로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간제, 간호휴가제, 재택근로제, 기혼여성 재고용장려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가내노동 보급 등과 같은 제도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1992.

13)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은 1990년 71.3세에서 2000년 74.3세, 2005년 75.3세, 2010년 76.1세로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p. 17.

따라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1990년의 18,085천명, 2000년에는 22,456천명, 2005년에는 24,884천명, 2010년에는 26,838천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정보화의 진행을 반영하여 1990-2010년 기간 중에 3차산업의 취업자수가 950만명, 2차산업이 152만명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1차산업의 경우 227만명 감소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도 크게 변화되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1990년 54.5%에서 2000년 66.0%, 2010년 72.2%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은 1990년 27.2%에서 2000년 25.7%, 2010년에는 2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차산업을 광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광업의 취업자수는 1995년 3.9만명에서 2010년 2.9만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하나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1995년 499.1만명에서 2010년 647.8만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산업을 세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되기는 하나, 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2000년대 초에 각각 연 6%, 4.5%내외의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나머지 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은 연 1% 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자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4. 中長期 勞動市場 現況

지금까지 각기 별도로 전망했었던 노동력 수급전망을 함께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자수 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에 연평균 2.2%, 2000년대 초반 2.1%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1.5%로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인력수요는 2000년에 2,246만명, 2010년에 2,68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비해 노동력 공급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력수요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 1990년 후반에 연평균 2.0%, 2000년대 초반 1.6%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1.0% 수준을 보일 것이다.

<표 7>의 노동력공급은 연령별로 민간인구수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 것으로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경제활동인구)를, 그리고 노동력수요는 취업자

〈표 5〉 산업별 인력수요의 전망(I)

(단위 : 천명)

	1990	1995	2000	2005	2010
전 산업	18,085	20,179	22,456	24,884	26,838
1차산업	3,237	2,523	1,839	1,345	967
2차산업	4,990	4,950	5,801	6,198	6,507
3차산업	9,858	12,706	14,815	17,341	19,364

〈표 6〉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II)

(단위 : 천명)

년도	농수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가 스 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업	금융 부동산	사회 서비스
1995	2,523	39	4,911	72	1,690	5,455	1,014	1,492	2,983
2000	1,839	36	5,765	72	1,607	6,303	1,079	1,930	3,825
2005	1,345	32	6,166	77	1,756	7,183	1,162	2,493	4,670
2010	967	29	6,478	80	1,857	7,832	1,207	2,989	5,399

〈표 7〉 성별 인력수급의 전망

(단위 : 천명)

	1994	2000	2005	2010	기간별 연평균 증감율		
					1996-2000	2001-2005	2006-2010
노동력공급(A)	20,326	22,891	24,406	26,406	2.0	1.6	1.2
노동력수요(B)	19,837	22,456	24,884	26,838	2.2	2.1	1.5
수급격차(A-B)	489	435	-478	-432	-	-	-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 7〉의 인력수급전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4년 현재의 실업률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실업률을 3.0% 정도로 가정한다면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표 7〉의 노동력공급에는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력공급에 비해서 노동력 수요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현재의 인력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일부 부문(sectors)의 노동력부족현상이 아니라 거시적인 초과노동수요에 의한 인력부족현상(연간 약 40만명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론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①임금의 급상승으로 기업이 노동절약적 기술을 채택하여 노동수요가 전망치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거나, ②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의 방지와 이에 의한 경제적 손실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의 活用을 확대할 수 있고, ③ 만약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져서 ①에 의한 인력수요감소 또는 ②에 의한 노동공급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IV. 潜在人力の 特性과 展望

##### 1. 잠재인력의 규모와 특성

잠재인력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잠재인력의 규모가 달라지나, 본 논문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潜在人力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가용잠재인력의 규모는 약 209만명(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이고, 이들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5.7%에 달한다.

이들 잠재인력을 非經濟活動事由別로 구분하면, 가사와 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0.6%, 통학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인구가 2.2%, 기타(노령이나 심신장애, 자원활동참가 등의) 사유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인구가 2.9%이다. 이를 성별, 연령집단별로 구분해서 보면, 첫번째 집단은 대부분이 25-49세의 기혼여성이고, 두번째 집단은 15-29세 집단(남녀비율은 비슷함) 그리고 세번째 집단은 15-54세 남성집단(1.2%)와 55세 이상 인구(1.0%)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가용잠재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 즉,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가용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참가를 원하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시장체의임금수준에 비해서 잠재인력의 留保賃金(reservation wages)이 너무 높아서 노동공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인력, 노령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이나 편견 혹은 채용에 따른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 비용의 추가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들 인력의 활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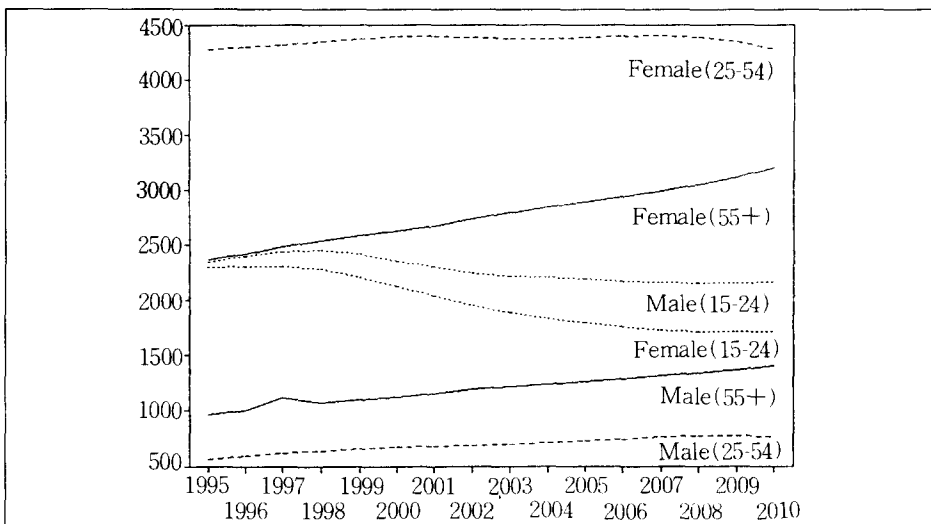
## 2. 잠재인력의 전망

향후 잠재인력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이에 따라 차선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잠재인력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았다. 2010년까지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전망을 보면, 25-54세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까지 430만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이에 비해서 15-24세 비경제활동인구는 1998년을 고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남자 216만명, 여자 17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0년에는 남자 139만명, 여자 3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향후 성별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와 앞에서 이미 분석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의하면, 2000년대에도 잠재인력을 형성하는 주요 집단은 55세 이상 고령집단, 25-54세의 기혼여성집단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이가 계속되더라도 2000년 경에는 노동시장에 인력부족 상황이 심화될 것이고, 이 때 인력정책의 하나로 대두될 잠재인력 활용정책의 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인력과 25-54세의 기혼여성인력임을 나타낸다.

<그림 2> 성별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 V. 潜在人力の 活用方案

지금까지 살펴본 2010년까지의 노동시장 전망에 의하면, 현재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정보화, 서비스화 됨에 따라, 3차 산업 특히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의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업종들에 속하는 직업들의 직무요건(job requirements)은 대부분 정신적인 노동의 성격을 띠고,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이다.

인력부족과 함께 연소노동력의 감소와 남성 주노동력의 증가가 둔화되면, 기본적으로 연소노동력과 남성 주노동력의 임금수준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女性人力이나 老齡人力 등과 같은 잠재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됨과 동시에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다. 즉, 향후 인력부족이 심화되면 기본적으로 市場調整機能(market mechanism)에 의해서 잠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활용이 가능한 잠재인력 집단인 기혼여성과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참가는 남녀차별이나 연공급 임금체계 등과 같은 内部勞動市場의 제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문제 등과 같은 非市場的인 要因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00년대의 인력부족문제를 시장조정기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력부족시대를 맞이하여 적정한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재인력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함께 이들의 노동공급을 막고 있는 비시장적, 제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女性의 노동시장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유보임금수준을 낮추어 여성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 기업의 여성노동비용을 경감시켜거나 기업주의 남녀차별이나 편견을 제거시켜 여성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가사 및 육아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가격(수탁료)의 保育市場(child-care market)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여성인력의 양적인 확



대 이외에도 잘 교육·훈련된 취업여성의 결혼·출산에 따른 퇴직을 억제함으로써, 인력의 질적 조정기능을 원활히 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홍보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가사노동의 남녀분담의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과거부터 기업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 온 모성보호비용(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채용, 배치, 승진, 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 내의 제반 男女差別과 여성에 대한 偏見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감독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감독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의 노동이동제약을 감안하여, 스웨덴에서와 같이 지역별 노동수요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별 산업시설의 재배치, 노동단지개발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中高齡人力을 活用하기 위한 制度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노동력공급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차 감소될 것이므로, 중고령층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向上訓練을 제고시키고,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직이 필요한 인력을 위한 轉職訓練機能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령인력(55세 이상 퇴직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또한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령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령인력을 미숙련 단순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향후 정책방향은 과거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퇴직인력을 대상으로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보수 및 인사관리제도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연공임금체계에서 기업인력구성의 고령화는, 임금의 상승, 직위 부족에 따른 승진적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퇴직후 再雇傭하는 제도, 일정 연령(예, 55세)까지는 연공과 함께 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나 그 이후부터는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보수 및 인사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雇傭形態와 勤務制度를 도입,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인력부족시대를 맞이 하여 잠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서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정보기술의 보급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형성될 것이므로, 기업은 재택근무를 하여도 생산성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직종이나 업종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flexible working system)와 같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勤務形態 등을 도입하여 잠재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소위 시간제근로자, 촉탁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형태의 파급속도는 서비스경제화의 진행과 기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의해서 향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는 제한된 근로시간이나 기간만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기혼여성, 고령자 그리고 장애자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확산되면,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간제 고용형태의 도입은 실태와 추이를 고려해가면서 도입을 장려해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内部勞動市場과 통합된 시간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퇴직을 위한 시간제 노동(part-time work for phased retirement), 육아을 담당해야 할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노동(parental part-time work)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1. 구성렬, 『우리 나라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2. 김수근,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76.
3. 김유배, “국가경쟁력과 인력정책의 과제”, 『한국노동경제논집』, 제17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5.
4. 김중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기계량모형”,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 87-109.
5.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6. 김태홍, 김재원,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1995.
7. 노동부,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1992.
8. 박명수,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990.
9. 배무기,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2.
10. 백웅기, 오상훈, ‘한국의 거시경제 분기모형: KDIQ92’, 『한국개발연구』, 15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3, pp. 3-81.
11.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3.
12. 이종훈, 『노동시장 전망과 인력개발』, mimeographed, 한국개발연구원, 1993.
13. 직업훈련연구소, 『직업훈련소요인력수급에 관한 연구(1981-1991)』, 1983.
14.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16. 한국개발연구원, 『복지사회의 인력사회의 직업안정』, 1981.
17. 한국과학기술처, 『이공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관한 연구』, 1983.
18.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처, 『장기인력수급전망(1977-1991)』, 1978.
19.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처, 『장기인력수급전망과 대책』, 1983.
20.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수급체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994.
21. 한국산업개발원, 『과학기술인력 이공계 석·박사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1983.
22. O. Ashenfelter and Wallace Oates(eds.), *Essays in Labor Market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23. O. Ashenfelter, R. Layard ed.,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 North-Holland, 1986, pp. 7-19.
24. W. B. Bowen and T. A. Finegan,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5. Ehrenberg, R. G., and Smith, R. S.,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3rd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8.
26. R. A. Jenness, *Manpower and Employment: Problems and Prospects*, OECD, 1978.

27.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28. G. L. Perry, "Potential Output and Productivity",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1977, pp. 11-47.
29. A. Tella, "The Relation of labor Force to Employm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1964, pp. 454-469.
30. United Nations, *The World's Women 1995: Trend and Statistics*, Social Statistics and Indicators Series k, No. 12, 1995.
31. 雇用政策研究會, 『勞動力需給の 展望と 課題』, 勞動省, 1995.
32. 勞動省, 『勞動力需給の 展望と 課題』, 1992.
33. 日本 經濟企劃廳, 『1800勞動時間社會の 創出』, 大蘇省印刷局, 1989.
34. 日本 勞動省, 『勞動力需給の 長期豫測』, 勞動大臣 官房政策調查部, 1988.
35. 水野朝夫, 小野 旭, 『勞動の 供給制約と 日本經濟』, 大明堂, 1995.
36. 清家 篇, 『高齢化社會の 勞動市場』, 東洋經濟新聞社, 1993.